

여수 돌산갓, 생산량·매출액 증가...지역경제 효자노릇 '톡톡'

여수시(시장 권오봉)의 대표특산품인 돌산갓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돌산갓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2월부터 5월 까지 4개월 동안 9천742톤이 생산돼 전년 대비(8천791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84.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52억 원에 비해 63%가 증가했다. 매출 단가는 4개월 평균 kg당 877원으로, 작년 4개월 평균 591원에 비해 48%가 증가해 매출액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올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심한 주야간의 온도차로 꽃대가 빨리 올라오고, 잦은 강우로 인한 병해 발생과 작업 지연 등으로 일부 갓의 상품성이 떨어져 부분적으로 폐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액 상승을 가져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가정에서의 갓김치의 주문이 평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생갓 품귀 현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볼갓' 재배 면적 확대와 생산량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여수시의 대표특산품인 돌산갓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전년 동기(2~5월) 대비 생산량 11%, 매출액 63% 늘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주문 평년대비 1.5배 이상 ↑

시는 3년 전부터 고온기 병해 저항성이 높고 추대가 늦은 돌산갓 종자를 개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종자의 균일성, 생산성 검증 후 4~5년 후 품종 출원을 계획하고 있다. /여수=이문석 기자

갓'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산갓의 적기 수확을 위해 현장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지역 농산물과 '돌산

갓'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3년 전부터 고온기 병해 저항성이 높고 추대가 늦은 돌산갓 종자를 개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종자의 균일성, 생산성 검증 후 4~5년 후 품종 출원을 계획하고 있다. /여수=이문석 기자

곡성군, 팔방미인 농업미생물 보급 확대

저렴한 가격·친환경 효과 덕에 최근 사용량 크게 증대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생산한 농업미생물 보급을 확대해 농업인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곡성군은 지난 2013년부터 농업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며 보급하는 미생물의 종류와 생산량을 계속해서 늘려왔다.

최근에는 사용량이 크게 늘어 평균 130톤 가량이던 사용량이 작년 한해에만 210톤이 사용됐다. 보통 시중에서 판매되는 미생물이 리터당 1천원 이상인 것에 비해 곡성군은 100원 가량에 공급한다.

이처럼 저렴한 가격에 군에서 생산한 농업미생물을 찾는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농업미생물은 주기적으로 사용 시 측사 약취 저감, 작물 품질 향상, 병해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 또한 계속된 연작으로 황폐화된 우리나라 농토를 회복하는데 효능이 인정받아 전국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보급량을 늘리고 있다.

곡성군이 생산하는 미생물은 지역 토양에서 직접 채취해 배양하기 때문에 환경 등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토착미생물이라는 점이 특별하다. 긴 시간 동안 지역토양에 적응한 강한

미생물을 다시 지역토양으로 환원해 균형이 깨진 토양 속의 미생물상을 회복할 수 있다.

더불어 곡성군은 미생물 30여 종에 대해 시험배양을 실시해 효과가 입증된 4종을 선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믿고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약취저감 미생물 3종을 새로 도입하기도 했다.

곡성군은 가족사육환경 개선과 약취 등 인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농업미생물 보급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로 작물재배 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서도 찾는 목소리가 많아지기도 했다.

현재 내년 말을 목표로 '고농도 농업미생물 대량배양장'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고농도 농업미생물 대량배양장이 가동된다면 농업미생물의 농도는 10배로 높이고 배양량은 2배로 늘릴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효과가 우수한 균주를 선별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균일한 품질을 유지해 신규 농업미생물 배양장이 모두에게 환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곡성=심선섭 기자 sss2634@

구례 마산면, 교육공동체 협약

구례군 마산면(면장 김형욱)은 최근 마산면의 화엄사 등 관내 12개 기관단체와 함께 '마산면 교육공동체 구성 및 운영방안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마산면 교육공동체는 △마산면사무소 △마산면주민자치위원회 △정천초등학교 △화엄사 △자연드림파크 △국립공립지리산전남사무소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 △그레규레협동조합 △지리산씨협동조합 △문화관광해설사협회 △마산면청년회 △정천초등학교학부모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례군과 구례교육지원청이 활동을 지원한다.

마산면 교육공동체는 화엄사 사자삼층석탑 등 효와 관련된 역사 및 지역 문화재 교육과 반달곰 생태학습장 등 지역체함을 추진한다. 공부두뇌를 깨우치는 대립토론 수업을 도입하고 표고버섯 수확 및 음식 만들기 체험도 추진한다.

학교 후갈 곳이 없는 어려운 아이들 위해 학부모 모인인 '마산면 마을교육공동체 정천이랑'을 구성하고 마산면종합복지회관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했다. /구례=심건식 기자 sgeonsik@

광양시, 인구 증가세 '정주여건 개선 덕' 분석

'20만 자족도시' 위해 도시 경쟁력 강화·미래성장 동력 확보 박차

광양시 인구가 지난 두 달 사이 1천204명이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인구는 15만2천576명으로, 15만1천372명이었던 지난 3월 말보다 1천204명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 인구는 지난 연말 인구대비 3월 까지 5천여 명으로 급격히 줄었다가 4월 379명, 5월 825명이 늘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광양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주여건 개선과 보육지원,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일자리 등 자족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갖춰 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명품아파트 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이 인구 유입의 주원인으로 보인다.

실제 동원스태네움 아파트 준공을 시작으로 증마동은 이 기간에 454명이 늘었

고, 성황 도이지구 내에 1천140세대 규모의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와 704세대 GS자이 아파트 등 명품아파트 청약 신청으로 두 달째 증가하고 있다.

이들 명품아파트 입주자가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신규 아파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13개 단지, 8천928세대의 아파트 신축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보육지원 사업의 과감한 투자가 젊은 층 인구유입을 견인해 증가세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시는 부담없이 안심하고 아이키우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육재단을 설립해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저소득 다자녀아동 학습비 지원 등 14억8천5백만 원을 투자했다. /광양=오승택 기자 ost6002@

올해는 △산후조리(산모·신생아) 서비스(10억 원)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운영(1.7억 원) △국립어린이집 확충(15억 원) △내고장 인재 육성사업(70억 원) 등 신규사업 6건을 포함해 21개 사업(229억 원)을 확대 추진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남 최초로 모든 시민에게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했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대책'에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제철관련 연관 국가산업단지, 광양항 배후단지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와 금속가공열처리지원센터 건립 △고망간강 상용화사업 △이차전지클러스터 단지 △드론 규제자유특구 지정 △광양항 마린베이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다양한 연령, 계층별 시민들로 구성된 100인 위원회는 향후 1000인 위원회로 확대 발전시켜 '찾아가는 작은 토론' 등을 통해

순천시 생태도시 조례제정 100인 위원회 출범

화포해변 해안쓰레기 정화활동 후 현장 발대식 가

'순천시 생태도시 조례제정 100인 위원회'(회장 신광래)에서는 지난날 30일 별량면 화포해변 선착장에서 15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은 지난날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화포해변에 유입된 폐어망을 비롯한 스티로폼 부표 등의 해안쓰레기 정화활동을 2시간 가량 펼친 후 현장에서 진행됐다.

순천YMCA 김석 사무총장 사회로 동부지역사회연구소 장재철 소장의 경과 발표를 시작으로 대표 위원 선임, 운영 조직 구성, 사업계획 공유 순으로 진행됐으며 대표위원장으로 신광래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이 선출됐다.

다양한 연령, 계층별 시민들로 구성된 100인 위원회는 향후 1000인 위원회로 확대 발전시켜 '찾아가는 작은 토론' 등을 통해

해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수렴한 조례 초안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시민들 손으로 만들어진 조례 초안은 세부 법률 검토와 시 관계 부서 자문 등을 거쳐 확정하고 범시민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펼쳐 올해 10월 중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생태도시 미래를 위해 시민들이 어려운 직접 역할을 맡아주시길 바란다"며 "조례제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순천시민 546명(대표 신광래)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태도시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에 관한 정책토론을 청구했고, 시는 지난 5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순천=오승택 기자 ost6002@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